

사용후 핵연료 쌓이는데 '보관세 입법' 누가 막나

영광군 등 원전 10개 지자체 '사용후핵연료 보관세' 입법 요구
산업부 "이중과세" 반대에 20대 국회 상임위 못 넘고 좌절
영구처분장 40년 간 건설 못해 ... "수도권에 있어도 이렇건가"

인류 최악의 발명품 '사용후핵연료'가 보관된 지역에 '사용후핵연료 보관세'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 제정이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4일 전남도와 영광군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 미래통합당 강석호·유민봉 의원이 사용후핵연료 및 그 외 방사성 폐기물을 과세 대상(지역자원 시설)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보관세 도입은 '이중과세'라는 산업통상자원부 반발에 밀려 소관 상임위원회(행안위) 벽을 넘지 못하고,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지난해 5월 영광군을 비롯한 전국 10개 지자체가 '사용후핵연료 보관세' 도입 건의문을 발표하고, 전남도를 비롯한 원전 소재 5개 시도 관계자가 청와대를 방문해 법률안 개정에 힘을 보태달라고 건의했으나 허사였다.

산업부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지역자원시설세(발전량 kWh당 1원)에 더해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에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이는 원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에 과도한 부담을 준 다며 법안 개정에 반대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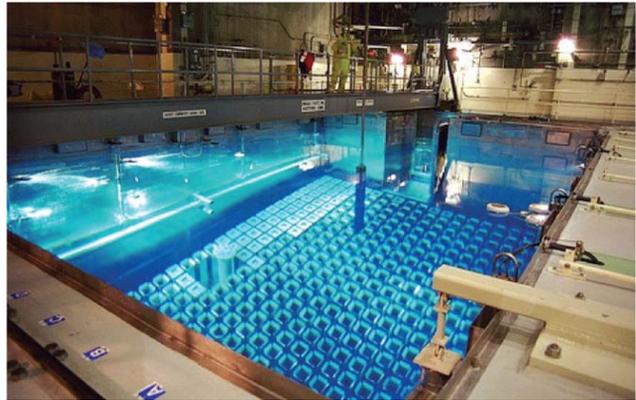
그러나 전남도와 영광군 등 원전 소재 지자체는 "산업부 주장은 엉터리다. 과세의 대상 및 목적이 다르다"며 "정부와 원

전사업자가 제때 영구 처분장 건설을 못하면서 지역에는 위험물질만 차곡차곡 쌓이고, 자칫 영구 핵폐기장으로 전락할지 모르는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제도적으로 합당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정부때 구성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도 2015년 6월 최종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사용후핵연료 보관비용은 매년 보관량에 따라 지급하되, 처분시설 혹은 원전 밖의 특정 시설로 이전하기 전까지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정부에 내린 바 있다.

이개호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원전 소재 지자체가 떠안는 위험에 합당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도록 21대 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후핵연료 보관세'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 한빛원전 한빛 1-6호기 내부 수조(물탱크)에는 2019년 9월 기준, 모두 6436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저장 중이



영광 한빛원전 내 사용후 핵연료(폐연료봉) 저장 물탱크. 사용후 핵연료는 10만년 간 핵 독성 물질을 내뿜는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다. 사용후핵연료보다 독성이 약한, 경주 2번, 2만602다발이 보관 중이다. 전국 5개 원전에서는 사용후핵연료 47만9980다발이 보관 중이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중, 2만602다발이 보관 중이다. 전국 5개 원전에서는 사용후핵연료 47만9980다발이 보관 중이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

원전보일러를 돌리던 연탄재가 남듯, 원자력발전소를 돌리던 원자로에서 타고 남은 폐연료봉이 발생한다. '사용후핵연료' 또는 고농도(고준위) 핵폐기물'로 불리는 폐연료봉은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맹독성 물질로, 무려 10만 년간 인간 생활권과 격리해야 한다. 미국·일본·독일 등 원전 운영 국가가 중 어떤 곳도 사용후핵연료를 영구히 인류와 격리할 수 있는 영구처분장 마련에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기술 확보의 어려움과 부지 선정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 유발 등 난제가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원전에 보관 중이던 사용후핵연료가 피해를 더 키운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8만9762다발이 보관돼있다.

이개호 의원 등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경우 전남도(영광)에는 매년 43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된다. 부산은 512억원, 경북 1450억원, 울산 6억원의 세수가 발생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옛 도청~5·18 묘지 오월 한바퀴 '자전거 민주평화대행진'



24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자전거를 타고 국립 5·18민주묘지를 돌아오는 '자전거 민주평화대행진' 행사가 열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번 주부터 중·초등학생 순차적 등교

앞으로 2주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가르는 분기점 ... 광주·전남 방역 긴장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20명대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산발적 감염이 지속하면서 광주·전남지역 방역당국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고 3에 이어 이번 주와 다음 주 중학생과 초등학생들도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을 할 예정이어서 향후 2주가 코로나19의 재확산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집단 전파 우려가 높은 무증상 환자가 잇따르는 데다, 벌써 5차 전파 사례까지 나오는 등 이태원 클럽발(發) 'n차 감염'이 이어지고, 나들이 시즌을 맞아 광주·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는 점도 방역당국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만119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0시와 비교해 25명이 늘었다. 신규 확진자 수는 22일 20명, 23일 23명에 이어 사흘 연속 2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초 이태원 클럽발(發) 감염

이 잇따르면서 신규 확진자 숫자는 지난 10~11일 30명대(34명·35명)까지 기록했다가 이후 20명대, 10명대로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나 전국에서 클럽 관련 n차 감염이 속출하면서 지난 20일에는 32명으로 다시 증가하기도 했다.

다행히 아직까지 광주·전남에선 이태원 클럽발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감염자들이 광주와 전남 곳곳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광주에선 이날 현재까지 이태원발 감염 우려자 50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했으나, 다행히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상태다. 또 이날 오후 2시 현재 학생과 교사 등 289명이 유사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았으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남에선 인천 미추홀구 27번 확진자가 지난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장성군 추모공원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접촉자 찾기에 나서고 있다.

광주·전남 방역 관계자는 "이태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이 다행히 광주·전남까지 확산되지 않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클럽, 주점, 노래방 등을 통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면서 "학교 주변에 있는 노래방, PC방 등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업소들 방역 경계심 풀렸나 ▶6면
KIA, 연장전 패배 연습행진 마감 ▶18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심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록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PlayByYourRules

The New A-Class Sedan & The New CLA Coupé.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문대로 1041(화정동)
MB 인종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원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A 220 Sedan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430kg, 자동7단), 복합연비: 12.7km/ℓ(도심연비: 11.2km/ℓ, 고속도로연비: 15.2km/ℓ), 등급: 3등급, 복합CO2배출량: 135g/km) · A 250 4MATIC Sedan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515kg, 자동7단), 복합연비: 11.6km/ℓ(도심연비: 10.4km/ℓ, 고속도로연비: 13.5km/ℓ), 등급: 3등급, 복합CO2배출량: 148g/km) · CLA 25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550kg, 자동7단), 복합연비: 11.5km/ℓ(도심연비: 10.3km/ℓ, 고속도로연비: 13.5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배출량: 150g/km)
※본 연비는 표주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